

맞춤형 쌀, 간편식 시장 흔들다

익산시, 2017년부터 21만 톤 공급... 경제효과 3300억원

익산시가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품질 익산 쌀을 간편식 시장에 공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시책을 통해 3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하립과 CI, SFC그룹(파리바케트), 본아이에프(본죽·본도시락) 등 대기업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총 21만 톤을 생산·공급했다.

쌀은 익산시 전체 농지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작목이다. 익산시 쌀 생산량 역시 전국 지자체 중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로내9 팬데믹으로 집밥 선호가 늘어 나며 밀키트와 즉석밥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실제 국내에서 즉석밥 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CI(햇반)의 경우 지난해 8.1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연 매출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 역시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 계약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다.

기업 맞춤형 익산 쌀 생산단지가 처음 시작된 2017년에는 총 재배 면적이 1,500ha였으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그 면적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다. 그 결과 시는 CI 햇반 원료공 공급 지자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하립과 본아이에프, 농협 식품 등과의 계약 면적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전국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통계 정책 활용 공모 장려상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 농업·농촌 분야 유일한 정책

익산시가 전국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익산시가 호남지방 통계청으로부터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얻은 값진 결과다.

통계청은 지방 통계청별 예선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우수사례 중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 자료의 신뢰성, 독창성 분야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익산시를 농업·농촌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역 통계를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는 지자체 중 유일하다.

익산시는 전국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 소농 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농업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조사·통계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에게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택배비, 택배 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는 임업농가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익산시가 판매 대행해 소농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농가가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전국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 소농 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농업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조사·통계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에게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택배비, 택배 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는 임업농가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익산시가 판매 대행해 소농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농가가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전국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익산시 소농 기준을 마련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농업정보 통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조사·통계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9년부터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에게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 택배비, 택배 상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는 임업농가 농산물을 온라인을 통해 익산시가 판매 대행해 소농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농가가 판매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희망2024나눔캠페인 기부행렬 이어져

군산시는 1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온도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정운섭 前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도 백미110kg 80포(2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민정 호남총청본부장은 "오늘 우리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힘든 경제 상황

군산시는 1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 희망2024나눔캠페인의 온도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정운섭 前 전국한우협회 전북지회장도 백미110kg 80포(26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민정 호남총청본부장은 "오늘 우리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힘든 경제 상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 위한 택시 조례 제정

군산시, 택시 차령 연장·양수 거주요건 변경 등 규제 완화

군산시는 13일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고 더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와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 시키고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했다.

특히 지난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상 일반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도로 여건,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해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군산시 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는 기본 차령에 최대 2년까지 차령을 더할 수 있게 됐다. 단, 차령 조정 시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한 번 연장 시 1년을 더할 수 있다.

'군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는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는 군산 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지원 근거와 활동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범적으로 교통봉사 활동을 수행한 회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은 지난 11월부터 개정해 시행 중이다. 개정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기준과 양도·양수 기준 중 거주기간을 완화하여 청장년층 신규 진입을 장려하는게 주요 목적으로 기존 1년 이상 군산시 주민등록한 자에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한 자로 바뀌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앞으로도 침체된 택시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택시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구도심 활성화 해법 모색 위한 포럼 개최

익산시가 13일 익산청년시청에서 중앙동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사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췄다. 포럼은 사업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기초 강연자인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는 "중앙동 문화관광 연계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KTX



역사·중앙시장·중앙동 문화의 거리를 연계한 발전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어 중앙동 관련 4가지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 △야간 경제·관광 활성화 사

업 △치킨로드 조성사업 △숙박업·음식업 등 실태조사와 활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의 청년 공유주방에 입주한 송지원 익산제빵소 대표가 1년여 동안의 운영 사례를 진솔하게 발표하며 중앙동 청년창업에 관한 기대를 품게 했다.

정현을 시장은 "향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온라인 활용 대형 폐기물 '배기' 확대 운영

익산시가 온라인을 활용해 대형 폐기물을 쉽게 처리하는 '배기'를 확대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배기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도 쉽게 배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다. 배기 앱에 처분할 폐기물의 정보를 입력하고 카드 결제로 수수료를 납부한 뒤, 부여된 고유번호를 기재해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된다.

배기는 무거운 폐기물 운반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내려드림'과 재활용품 중고 거래 중개 플랫폼 '중고 매입'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내려드림'은 무거운 폐기물 운반이 어려운 1인 가구와 노년층 등을 위해 배출장소까지 운반을 대행해준다. '중고 매입'은 재활용품 중고 거래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로 중고 물품 거래 활성화, 재활용을 향상 등 자원순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익산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부착 방법을 축소하고, 온라인 배출 비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국립군산대창업보육센터 중장년기출창업센터 협약

국립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영석)는 군산중장년기출창업센터와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는 지난 12일 군산대창업보육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군산대창업보육센터 이영석 센터장, 군산중장년기출창업센터 김수용단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중장년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공동 참여, 창업지원을 위한 상호 자문 및 공동 프로그램 추진 활성화 등 중장년 창업자들의 성공창업을 위한 성장지원과 양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